

희망의날 지방선거 D-6

여당궤 정계 개편론

5·31 지방선거 현장

# 선거 전략이나 빅뱅 신호탄이나

5·31 지방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정계 개편론이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선거 참패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정계개편론은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 민주개혁평화세력이 연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난 20일 광주, 23일 군산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을 언급한 데 이어 24일 여수와 광양에서의 지원유세에서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민주개혁세력 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계개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 의장은 광양지역 유세 직후 '민주당과의 통합이 가능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나라당 연립전선을 구축할 것이고, 마음을 열고 협력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고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저번(3월)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고 전 총리가 5·31선거에는 불참한다고 했으니 선거 이후에 협력방안을 다시 타진하겠다"고 고 전 총리와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연 이은 정 의장의 정계개편 시사 발언은 우선 한나라당 싸늘이 분위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라는 관측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의 발언은 지방선거용 차원을 넘어 당의 주도권 문제를 물론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고차원의 정치전략의 의도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

## 정의장 "민주세력 연대 한나라 싸늘이 막자" 민주당·한나라 "선거참패 책임 모면위한 술책"

고 있다. 여당의 참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동영 의장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당의 주도권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정계개편'이라는 충격 요법을 조기에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계개편론을 토대로 책임론을 벗고 민주개혁평화세력 연대라는 주제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

해 김근태 최고위원 등이 동의할 지 미지수 인태다 김두관, 김혁규 최고위원 등과 친노 직계 의원들의 지지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의 정계개편 승수가 당내 갈등을 조기에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여당발 정계개편론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등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주

개혁세력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없어진 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통합의 뜻이 있다면 분당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우리당을 해체한 이후 진정한 민주당으로 원대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대연합론의 중심고리로 거론되는 고건 전 총리측도 "공식으로 제의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의장의 발언을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성의 힘 보여 줍시다" 2006년 지방선거 광주·전남 여성연대' 회원들이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앞에서 여성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선 우리당 전남선 민주당 지지율 정체...속타는 국회의원들

5·31 지방선거가 중반을 지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광주시장 선거 관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 시장·군수 후보의 고전 양상 때문이다.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은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가 선거 중반이 지나도록 고전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역 의원이 없는 전남지역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들은 선전하는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 후보들은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이 선거 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효석(담양·장성·곡성), 이낙연(영광·함평), 최인기(나주·화순), 신중식(고흥·보성), 이정일(해남·진도), 한화갑(무안·신안) 의원의 지역구 시장·군수 후보들 가

### 광주, 조영택 시장후보 열세 전남, 지역구 시장·군수 고전

운데 민주당 우세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접전이거나 경합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 완주군 목포시가 지역구인 이상열 의원만이 여유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이번 지방선거를 본 것 같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열세인 지역은 접전으로, 접전인 지역은 곧 우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의 사정도 비슷하다. 우선 김재균 예비 후보를 주저앉히고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내세운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 발등에는 불뿔이

떨어진 상태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조영택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 막판 반전을 기대하며 조 후보 피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선거 때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약재가 겹치면서 판세 역전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는 만약 광주시장 선거에서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락 부재의 광주지역 의원들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번 광주시장 선거전에 열린우리당이 패한다면 상당 부분의 책임은 광주지역 의원들이 져야 한다"며 "광주지역 의원들은 그 원인을 이원영 의원 및 문재인 수석의 발언 등으로 미루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끝까지 정책선거 하겠다"

○민주당 박광대 광주시장 후보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후보는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전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흑색선전이 조직적으로 날포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시·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지난 50여년간 국민과 함께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시·도민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 민주당"이라며 "시·도민들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면 반드시 정권재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순후보 정책공약 발표

○한나라당 박재순 전남도지사 후보는 24일 전남도당 당사에서 선거정책공약 발표회를 갖고 "반영하는 전남" "행복한 전남" "잘사는 전남" 등 3대 비전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또 이들 3대 비전 실현을 위한 ▲농·임·축·수산 시설 및 농기계 장기 저가 임대 제도 도입 ▲노인고령화 대책 ▲도시민 전원 회귀촌 조성 ▲신생아 보육센터 설립 ▲산단·농공단지 활성화 ▲소형어객기, 다도해 관광헬기 운항 등 10대 핵심공약과 61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또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연간 총 4천373톤(1천763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예산을 도 전체 예산의 25%까지 늘리고 농약안전성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화진후보 교육공약 발표

○열린우리당 김화진 광주 남구청장 후보는 24일 남구를 교육특구 육성하기 위한 3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배후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남구를 교육특구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3대 교육공약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원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경쟁력 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 "학원체육 활성화 조례 제정"

○열린우리당 이형식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유소년 및 청소년 학원 축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북구에 경양초등학교와 북성중, 금고 등 한국 축구의 산실로 불리는 대표적인 축구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대회출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학원 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안병태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보성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병태 후보는 최근 보성을 주부리에서 지지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안 후보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1급수 도의원'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신안 민주당원 530명 탈당

○신안지역 민주당 전 당직자와 당원 530여명이 24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군수 후보인 고길호 현 군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신안지역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은 민주당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폭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 이상동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당 이상동 광주 시의원 북구 제3선거구 후보는 24일 용봉지구에서 텔런트 박철호씨, 연예인 백남봉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 후보는 "전통 경영인의 경험을 살려 북구를 잘사는 지역으로 가꾸겠다"면서 "장애인 복지 처우 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신안=조완남기자